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몇몇 단상

류한수*

국문요약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1991년에 처음으로 독립 주권국가가 된 뒤로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놓고 극심한 내부 분열에 시달렸고,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고 켜켜이 쌓여온 갈등이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번졌다. 그러나 이 전쟁의 원인은 최근 한 세대 동안의 갈등에만 있지 않다. 그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고대 국가인 키이우(키예프) 루스 이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기나긴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최근 사태에만 초점을 맞추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근원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이 글은 2022년 2월에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주제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동슬라브인, 민족주의

*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petrograd@smu.ac.kr

I. 머리말

세계 평화의 제전인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이 2월 20일에 끝나고 그 흥겨움이 채 가시지 않은 2월 24일에 러시아 연방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군대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의 발발 자체도 세계인의 예상과 어긋났지만, 전쟁을 일으킨 군사 강국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우크라이나를 어쨌든 금세 이길 것이라는 예견도 여지없이 깨졌고, 늦겨울에 시작된 전쟁은 미국과 서방의 대규모 지원을 얻은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이 벌어지면서 여름과 가을을 지나 겨울에 접어들어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지금은 어느 누구도 전쟁의 종결 시점을 함부로 예측하지 않는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곧바로 크나큰 충격을 입고 휘청댈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가서 오히려 러시아 경제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듯하다. 국제 여론의 풍향 또한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지만, 러시아 경제 제재에 앞장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회원국과 보조를 맞추며 뒤따르는 나라는 영연방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야욕과 러시아의 공격적 팽창주의 성향의 결과로 보면서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또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전쟁을 바라보는 속내와 시선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Slavoj Žižek)는 침공에 나선 러시아를 비판하며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야만적 전체주의 국가들 대 문명화된 서구 국가들 간의 충돌로 위험하게 단순화한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것을 “잘못된 관점”이라고 비판했다(지제크 2022). 한편, 일본과 한국의 여러 진보적 지식인들은 5월 9일에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이미 2개월이 지났다.
(.....)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푸틴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듯하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죽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래에 그만큼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 더 이상의 전쟁 계속은 용납될 수 없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정부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시 정전 의사를 세계 시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히고, 정전 회담을 마무리지어 정전을 실현해 주기를 희망한다.

위 성명서의 초점이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도덕적 단죄보다는 전투 행위의 조속한 중단과 평화 추구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¹⁾ 침공하는 러시아와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애타는 호소에 얼마나 진정한 자세로 호응할지 불분명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와 두 나라의 국내 정치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려는 노력이 많지만, 못지않게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역사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은 푸틴의 역사 해석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역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종 매체에서 진행되는 두 권력자의 선전전은 두 나라 군대의 충돌 못지않게 치열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역사 전쟁의 양상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 침공 이틀 전인 2월 22일에 푸틴은 러시아 시민에게 보내는 담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그저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 정신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동무, 친한 벗이지만 우리와는 핏줄과 가족으로 맺어진 거래붙이이기도 합니다.

침공 직후에 젤렌스키도 러시아 시민에게 호소하는 러시아어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916471289576>;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42210.html. 세계의 석학이자 불굴의 반체제 운동가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교수도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지나치게 몰아세우지 말고 실용적 태도로 전쟁 중지와 평화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있다. 김선명(2022).

우리는 국경을 2,000킬로미터 넘게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변에는 군인 20여만 명과 수많은 군대의 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러시아)의 지도부는 그들에게 이동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토로 향하도록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일컬으면서 젤렌스키는 “우리 땅”, “우리 역사”를 강조하지만, 푸틴의 역사 인식은 사뭇 다르다. 푸틴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저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러시아가, 더 정확히는 볼셰비키 공산주의 러시아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상, 1917년 혁명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레닌과 그의 동료들은 러시아에 무척 안 좋은 방식으로, 즉 러시아 고유의 역사적 영토의 일부를 러시아에서 떼어 내어 분리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닌 우크라이나는 별개의 민족 국가일 수밖에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국가 주권을 내세우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일종의 인위적 창조물로 여긴다. 이렇게 두 전쟁 주체가 사뭇 다른 시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본다는 사실은 오늘날 별개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지난날 맺어온 관계를 차근차근 짚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준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관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올바르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두 나라의 충돌을 최근 몇 년, 또는 몇 십 년 동안 빛은 갈등의 소산으로만 본다면 실로 많은 것을 놓칠 것이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지난날 맺은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부각하며 한국 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II. 근대 이전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아득히 먼 옛날에 유럽 동부에 퍼져 살던 슬라브(Slav)인은 정주한 위치에 따라 세 지파로 나뉜다. 오늘날 폴란드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의 선조가 되

는 서슬라브인, 오늘날 불가리아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의 선조가 되는 남슬라브인, 오늘날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의 선조가 되는 동슬라브인이 그 세 지파였다. 동슬라브인에서 갈라져 나온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과 벨라루스인, 이 세 민족의 언어는 매우 비슷해서, 우크라이나어를 배운 적이 없는 러시아인이라도 우크라이나어를 들으면 절반 이상을 알아들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지난날 유럽에서는 언어 못지않게 종교가 인간 집단의 동질감 형성에서 중요했다. 국민국가가 확고하게 자리잡기 이전의 전근대 유럽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대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였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기들이 같다고 느끼기 마련이었고, 다른 종교나 교파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이질감을, 심지어는 적개심까지 품기 일쑤였다. 공동 조상을 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종교는 다 같이 그리스도교 정교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처럼 조상과 언어, 그리고 종교가 같았으므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동질성은 무척 강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슬라브인의 첫 국가는 키이우 루스(키예프 루스)였다. 이 국가의 성립 시기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 견주어서 늦은 편인 9세기 말엽이었고, 그 중심지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키예프)였다. 러시아의 어원이 되기도 한 이 루스라는 나라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융성한 나라인 동로마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했다. 특히, 동로마 제국에서 전래된 그리스 문자에 바탕을 둔 키릴 문자와 동로마 제국의 종교였던 동방 정교는 동슬라브인의 향후 발전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키이우를 중심으로 루스가 번성하던 시기에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의 구분이 당연히 없었으며, 그보다는 대(大)러시아, 소(小)러시아, 백(白)러시아²⁾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다. 또한, 이때만 해도,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모스크바는 한적한 삼림 지대에 들어선 작은 도시에 지나지 않았다. 한참 동안 모스크바는 동슬라브인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미약한 축에 드는 도시였다.³⁾

2) 동로마인은 동로마 제국에 가까운 동슬라브인의 땅을 작은 루스, 먼 땅을 큰 루스라고 불렀다. ‘하얀 루스’의 어원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작은 루스, 즉 소러시아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큰 루스, 즉 대러시아는 오늘날의 러시아, 하얀 루스는 오늘날의 벨라루스에 해당한다.

3) 이런 사실 때문에, 오늘날 독립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발전한

13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회오리는 루스라는 나라의 운명에 파국적인 영향을 끼쳤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상호 분쟁을 일삼던 몽골인의 여러 부족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동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으로 정복에 나섰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바투가 이끄는 부대는 원정의 방향을 서쪽으로 잡고 나아가면서 루스와 마주쳤다. 몽골인의 서방 원정대는 일련의 도시를 정복했고, 특히 루스의 중심지인 키이우는 철저히 파괴해서 폐허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몽골인의 지배는 2세기 넘게 이어졌고, 이 시기에 동슬라브인의 세력 판도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모스크바가 키이우를 대신해서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던 것이다.

몽골인의 침공으로 동슬라브인 도시국가들의 판세가 뒤흔들리는 변화를 틈타서 성장한 도시가 바로 모스크바였다. 모스크바 대공국은 몽골 칸국(汗國)의 속령이 되어 몽골인 지배자에게 공물을 모아서 바치는 마름 노릇을 하며 존속했고, 1480년까지 이어진 이른바 “몽골의 멍에” 아래서 동슬라브인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15세기 말엽에 몽골인을 제압할 만큼 강성하게 자라난 모스크바 대공국의 통치자들은 16세기 중엽부터 스스로를 차르(Tsar')라고 일컬으면서 영토를 꾸준히 늘려나갔고, “대러시아, 소러시아, 백러시아 전체의 차르”를 자처했다.

몽골인의 침공이라는 재앙을 오히려 기회로 만든 모스크바가 성장하던 바로 그 시기에 한때 루스의 중심지였던 키이우 일대의 땅, 즉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민전사 집단인 코사크(Cossack)⁴⁾의 정주지가 되었다. 중앙 권력과 토지 귀족의 수탈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변경으로 이주한 농민의 후예였던 코사크는 헤트만이라는 정치 및 군사 지도자를 선출해서 자치를 향유했다. 12세기에 문헌에 처음 등장한 ‘우크라이나’라는 명칭⁵⁾은 16세기에 드니프로(러시아어로는 드네프르) 강 양안(兩岸)의

러시아가 동슬라브인의 만행을 자처하며 동슬라브인의 역사와 문화의 본산, 또는 종주국으로 행세하는 데 큰 반감을 표명한다. 우크라이나인은 우스갯소리로 ‘키이우가 대도시로 번영을 구가할 때 모스크바는 사람이 살지 않는 숲이었다’고 말하곤 한다.

4)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 남부에 정착한 이 농민전사 집단을 일컬어 러시아어로는 카자크(kazak), 우크라이나어로는 코자크(kozak)라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별개의 독립 국가가 된 상황에서는 코사크라는 영어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립성을 기하기에도 더 용이할 듯하다.

5) 우크라이나의 어원은 ‘변경’, ‘변방’, ‘변두리’를 뜻하는 슬라브어 낱말 크라이(krai)

코사크 땅이라는 의미의 고유명사가 되었다. 이 시기의 우크라이나는 독자적 국가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국가 조직을 갖추며 발전한 여러 열강 사이에서, 즉 서쪽으로는 폴란드, 북서쪽으로는 스웨덴,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드니프로 강 일대에 살던 코사크는 17세기 중엽에 동유럽의 강자로 떠오른 가톨릭 국가 폴란드가 압박을 해오자, 폴란드에 맞서 같이 싸워줄 우방을 찾아야 했다. 그리스도교 정교라는 같은 신앙을 가진 열강인 러시아가 그러한 우방으로 여겨졌다. 당시 코사크의 헤트만이었던 보흐단 흐멜니츠키(Bohdan Khmelnytsky)는 러시아 제국에 보호를 요청했고, 1654년에 러시아와 페레야슬라우(Pereyaslav, 러시아어로는 페레야슬라프)에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을 코사크는 주변의 여러 나라와 맺은 여러 보호 협약 가운데 하나로 여긴 반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복속으로 간주했다. 코사크를 보호해 준다면 러시아는 폴란드와 싸우기보다는 적절한 타협을 모색했다. 결국, 1667년에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서 드니프로 강을 구분선 삼아 강 서쪽 땅은 폴란드가, 강 동쪽 땅은 러시아가 차지한다는 안드루소보(Andrusovo) 조약이 맺어졌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Ⅲ. 근대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17세기 이후로 드니프로 강 좌안과 우안의 역사적 경험은 달랐기 때문에 드니프로 강은 우크라이나의 지리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문화, 심성을 가르는 분계선이기도 했다. 드니프로 강 동쪽 지대에는 동방 문화, 즉 러시아 문화가 강했지만, 서쪽 지대에는 서방 문화, 즉 폴란드 문화가 강했다.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동과 서의 성향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그리스도교 교파의 구분이다. 오랫동안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드니프로 강 서쪽 지대에는

이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땅을 변경, 변방, 변두리로 일컬은 이들은 당시의 모스크바 일대의 러시아인이 아니라 폴란드인이었다.

정교회의 의례를 지키면서도 로마 교황을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 인정하는 우니아트 교회(동방가톨릭 교회, 또는 동방귀일東邦歸一 교회)가 들어선 반면에, 드니프로 강 동쪽 지대에는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톨릭을 이단으로 간주하면서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교 교회임을 자부하는 정교회가 강성해서 우니아트 교회가 발을 붙이지 못했다.⁶⁾

제국으로 발전한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지배 영역을 계속 확장했다. 근대 초기에 동유럽의 강자였던 폴란드가 18세기에 접어들어 쇠약해지자, 러시아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세 쪽으로 갈라서 차지했는데, 이때 폴란드령 우크라이나도 갈라 먹기 대상이 되어서 드니프로 강 서쪽 땅 대부분이 러시아에, 일부는 오스트리아에 편입되었다. 몽골의 침공 이후로 잠시 갈라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 나라가 되었다고 보는 러시아 제국에서는 드니프로 강 유역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작은 러시아라는 뜻의 ‘말로로시야’(Malorossia)라는 용어가 쓰였다. 이처럼 러시아의 위정자들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한 지방으로 여겼다.⁷⁾

이른바 ‘작은 러시아’에 사는 주민들은 적어도 19세기까지는 스스로를 큰 러시아에 사는 주민, 즉 러시아인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대다수는 농민이었고, 자기가 사는 고장을 넘어서는 더 큰 지역 개념을 가지기 쉽지 않은 농민에게는 민족주의 이념이 낫설 수밖에 없었다. 인구의 다수가 농민인 것은 거의 모든 전근대 사회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지만, 영토의 거의 대부분이 농경에 아주 알맞은 흑토 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는 농민의 비율이 유달리 높았고 도시 주민과 상공업자는 매우 적었다.

러시아 제국의 우크라이나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인의 뚜렷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 현상은 농민이 아닌 우크라이나 출신 지식인 사이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19세기까지 우크라이나인 지식인은 스스로를 러시아 제국의 신민으로 간주하면서 러시아인과 구분되는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다. 가장 좋은 사례는 19세기 초중엽 러시아 제국의

6) 우니아트 교회의 위상과 성격, 그리고 우니아트 교회와 동방정교회와 관계와 갈등 양상에 관해서는 황영삼(2005), 강원식(2016)을 볼 것.

7) 러시아어에서 국가와 연관해서는 ‘브’(v)라는 전치사가 쓰이고 지방과 연관해서는 ‘나’(na)라는 전치사가 쓰인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로부터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에 연관해서는 전치사로 ‘브’가 아니라 ‘나’를 썼다.

우크라이나 출신 문학가일 것이다. 농민이나 쓰는 천박한 사투리로 여겨지던 우크라이나어를 문학어로 정립하고자 애썼던 이반 코틀라렙스키(Ivan Kotlyarevsky, 1769~1838년)는 러시아 제국에 충성을 바치는 전형적인 우크라이나인 신민이었다. 니콜라이 고골(Nikolai Gogol', 1809~1852년)도 마찬가지였다. 우크라이나 코사크 출신이었던 고골은 모국어인 우크라이나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로 문학 작품을 썼으며,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타라스 불바』(Taras Bul'ba, 1835년)처럼 고향인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를 작품의 소재로 애용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다른 독자성을 띠는 별개의 국가라는 관념을 품지는 않았다. 요컨대, 19세기 초중엽에 활동한 대표적 우크라이나 출신 지식인인 니콜라이 고골의 자기 정체성은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 신민이었다.

그러나 19세기는 민족주의의 시대였고, 19세기 중후엽에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일어난 민족주의 열풍은 우크라이나에도 닥쳐서 비록 미약할지라도 우크라이나의 자기 정체성을 부각하는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움직임은 주로 도시의 지식인 사이에서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니콜라이 고골 다음 세대의 우크라이나 시인 타라스 셰우첸코(Taras Shevchenko, 1814~1861년)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농노 집안에서 태어난 셰우첸코는 러시아 제국에서 미천한 농부나 쓰는 저열한 언어로 간주되던 모국어인 우크라이나어가 뛰어난 예술어가 되기에 모자라지 않는 아름다운 언어임을 입증하고자 대표작인 『유랑시인』(셰브첸코 2005)을 써서 호평을 받았다. 이로써 셰우첸코는 우크라이나어를 당당한 문학어로 정립한 우크라이나 시인이 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고유의 역사도 부각되고 강조되었다. 우크라이나 출신 역사학자 미하일로 흐루셰우스키(Mykhailo Hrushevsky, 1866~1934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다른 역사를 지녔음을 입증하고자 연구를 거듭해서 완성한 『우크라이나의 역사』(흐루셰브스키 2016)를 펴냈다(한정숙 2014).

19세기 중후엽에 이르러 우크라이나 지식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번져 나갔다.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출신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활동에 별다른 위기감을 품지 않았던 러시아 제국의 위정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놀라서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 교육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 고유의 문화를 억누르는 정책을 펴나갔다.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정체성의 강

화가 러시아 제국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우크라이나 분리독립 운동으로 바뀔 가능성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들의 감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러시아 제국은 20세기를 맞이했다. 적어도 지식인의 우크라이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

IV. 현대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에, 더 나아가 전세계에 충격파를 퍼뜨린 러시아 혁명의 여파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도 일대 전기를 맞이하는 듯했다. “민족들의 감옥” 러시아 제국이 허물어진 뒤 1917년 3월에 들어섰던 임시정부를 밀어내고 10월에 권력을 잡은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과 볼셰비키당이 새로운 세상의 구성 원리로 내건 여러 이념 가운데에는 민족자결주의가 있었다. 1918년에 혁명 정부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폴란드와 핀란드의 독립을 허용하고 승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도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이 생겼다. 일찍이 1917년 3월에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의 소비에트에게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중앙 라다(Rada)’가 결성되었는데, 미하일 흐루셰우스키가 주도하는 이 중앙 라다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의 독립보다는 자치를 추구했다. 러시아 임시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폈다. 이 임시정부가 볼셰비키에게 무너진 뒤 곧바로 우크라이나 중앙 라다는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세력은 하르키우(하르코프)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웠다. 급기야 1918년 1월에 키이우에서 볼셰비키 지지 세력과 시가전까지 벌이게 된 ‘우크라이나 중앙 라다’는 우크라이나의 완전 독립을 선언했다. 볼셰비키에게 키이우를 빼앗긴 독립 세력은 3월에 독일을 끌어들여 우크라이나에서 볼셰비키를 몰아내려고 시도했지만, 키이우에 들어온 독일군은 ‘우크라이나 중앙 라다’를 해산해버린 뒤에 꼭두각시 정부를 내세웠고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식량을 독일로 가져갔다.

러시아 혁명에 뒤이은 세 해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 동안 우크라이나 땅은 온갖 정치 세력이 서로 엇갈리며 맞부딪치는 싸움터가 되었다. 1918년 11월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독일 군대를 거

두어들였지만,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혁명 러시아의 붉은 군대와 농민 무정부주의자 군대, 프랑스 군대와 폴란드 군대가 들어오고 물러나기를 되풀이했다. 1919~1920년에 북쪽과 동쪽에서는 붉은 군대가, 서쪽에서는 폴란드 군대가, 동남쪽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안톤 데니킨(Anton Denikin)의 반혁명 군대가, 남쪽에서는 프랑스 간섭군이 우크라이나를 노렸다. 이 내전 기간 동안 키이우의 주인이 무려 14차례나 바뀌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극심한 혼란에 시달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도시는 볼셰비키 편이었고, 농촌은 토지 분배에만 관심을 보이며 우크라이나의 독립에는 심드렁했다. 1919년 12월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20년에 폴란드가 프랑스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혁명 러시아를 침공했으며, 10월의 휴전에 이은 강화 조약에서 우크라이나의 서부가 다시 폴란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첫 독립 국가는 허수아비 꼴이 되었다. 내전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의 서부는 폴란드 영토에 편입되어 있었고 중부와 동부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서 있었다. 이 사회주의 공화국은 1922년 12월에 결성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창립 회원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인의 첫 독립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든 다시 독립하려고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의 완전 독립 시도가 궁극적으로 실패한 근본 원인은 우크라이나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계층의 1차적 관심사가 민족 독립보다는 토지 분배였다는 사실에 있다. 우크라이나 농민에게는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보다는 농토를 나누어준다는 사회주의가 결국은 더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뒤에 혁명 러시아를 이끌게 된 레닌과 볼셰비키당은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웠고, 근대에 접어들어 단 한 번도 국가를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독립 정치체의 지위를 부여했다. 물론, 그것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바라던 형태의 완전 독립 국가가 아니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형태였지만, 어쨌든 러시아와는 별개의 정치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그 뒤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소비에트 연방의 한 식구로서, 그러나 일정 정도로 독자적인 정치체로서 소련

의 70년 역사를 같이했다.

1920~1930년대의 소비에트 연방 치하에서 우크라이나에는 빛과 어둠이 엇갈렸다. 각 공화국의 민족 토착화 정책을 표방한 소비에트 연방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정부 및 당의 간부에 우크라이나인의 비율을 크게 높였고, 우크라이나의 고유 언어와 민족 문화를 크게 장려했다. 뒤떨어진 소비에트 연방을 강력한 산업 국가로 탈바꿈할 야심찬 기획으로 1928년에 시행된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우크라이나는 중점 지역이 되었고, 전체 투자의 20퍼센트가 우크라이나에 할당되었다. 이 시기에 건설된 새 공장 1,400개 가운데 400개가 우크라이나에 세워졌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우크라이나의 동부에 대규모 탄광과 초대형 콤비나트가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의 공업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시설에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드니프로 강에 건설된 수력발전소는 당시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발전소였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크라이나인 도시 노동자의 비율이 급등했다. 1926년에 우크라이나 도시 인구에서 6퍼센트였던 우크라이나인 인구 비율이 1939년에는 30퍼센트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서 우크라이나는 1930년대 초엽에 대재난을 겪었다. 소련의 최고 지도자 스탈린(Stalin)이 1920년대 말부터 개시한 농업집단화는 우크라이나에는 재앙 그 자체였다. 당과 정부는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급자족 위주의 작은 농장들을 대규모 집단농장으로 한데 합치는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로 1928년에 3.4퍼센트였던 우크라이나의 집단농장 비율이 1935년에는 91.3퍼센트로 치솟았다. 그러나 대농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된 농민은 농사를 지을 의욕을 잃었고 극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농업 생산성이 뚝 떨어졌다. 이 같은 정책 실패에 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친 1930년대 초에 대기근이 우크라이나를 덮쳤고, “유럽의 빵바구니”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곡식이 넘쳐나던 우크라이나의 거리에는 굶어 죽는 이가 널려 있었다. 공업화의 밀천을 마련하는 데 목숨을 건 소비에트 연방 지도부는 구호 식량을 보내기는커녕 그나마 우크라이나에 남은 곡물을 모조리 거둬서 외국에 수출했다.

이 대기근 기간 동안 굶어 죽은 우크라이나인이 35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희생자 수가 900만 명을 웃돈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학자들은 1930년대 초엽 우크라이나의 대기근이

단순한 자연재해나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족을 말살하려는 소비에트 연방 지도부의 의도적인 제노사이드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대기근의 피해는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도 격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의 절멸을 노린 의도적 제노사이드였다는 시각을 반박하는 주장도 있다. 진실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분명한 점은 1930년대 초엽 우크라이나의 대기근, 즉 “홀로도모르”(Holodomor, ‘굶주림을 통한 대량 살상’)의 기억이 우크라이나인에게 지우기 힘든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세찬 소용돌이가 일던 1920~1930년대에 완전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이 존재했다. 실로 강렬한 우크라이나 독립의 염원을 간직했지만 농민 계층 안에서 민족의식이 열은 탓에 현실에서는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 했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는 극단으로 치달아 인종주의적 파시즘 성향을 띠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사이 기간에 파시즘이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파시즘이 가장 큰 호소력을 과시했던 지역이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였다. 여기서 실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인물이 스테판 반데라(Stepan Bandera, 1909~1959년)이다. 우크라이나의 전투적 민족주의자인 이 인물은 1930년대에 이미 인종주의적 파시스트가 되었고, 지하에서 우크라이나 독립 운동을 이끌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소련 전쟁은 스테판 반데라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젖혀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몰아쳤다. 19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해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소비에트 연방은 러시아 내전 끝 무렵에 폴란드에게 빼앗겼던 우크라이나 서부를 되찾았다. 그러나 1941년 6월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기습 침공하자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에도 피바람이 몰아닥쳤다. 우크라이나에 들이닥친 독일군에게 소비에트 연방의 붉은 군대가 밀려나자, 순수한 우크라이나인만의 독립 국가를 꿈꾸는 스테판 반데라가 이끄는 극우민족주의 조직은 나치 독일에 협력했다. 특히 반데라 추종자들은 우크라이나인 친위대(SS) 부대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이민족, 즉 유대인과 폴란드인과 러시아인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941년 후반기에만 유대인 20만 명을 죽였으며, 나치 점령 기간에 학살당한 우크라이나 유대인 90~150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반데라 추종자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허용할 생각이 없던 나치 독일이 1942년 9월 5일에 반데라를 체포해서 독일에 있는 수용소에 감금했지만, 그 뒤에도 반데라 추종 세력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멈추지 않았고, 1943년에는 10만 명을 웃도는 폴란드계 주민을 학살했다.⁸⁾ 반데라 추종 세력이 수행한 반(反)소련 무장 투쟁은 1944년 4월에 붉은 군대의 4성 장군 니콜라이 바투틴(Nikolai Vatutin)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열했다.⁹⁾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풀려난 반데라는 냉전 초기에 미국의 CIA와 손잡고 소련 공격을 획책하다가 1959년에 서독에서 소련의 정보기관이 보낸 우크라이나 출신 요원에게 암살되었다.¹⁰⁾ 소비에트 연방에 항거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비정규전은 1950년대까지 멈추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비에트 연방은 나치 독일을 물리치며 최종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피해를 겪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군인 1천만 명과 민간인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같은 피해로 말미암아 트라우마를 얻은 전후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부는 강박에 가까울 만큼 국가안보에 매달렸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러시아인으로서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권력자가 된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는 페레야슬라우 조약 체결 300주년인 1954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호를 다진다고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에 품은 크나큰 형제애와 믿음의 또 다른 확인”으로서 러시아 공화국 영토인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공화국에게 넘겨주었다. 소비에트 연방 안에서 이루어진 이 크림 반도 관할권 이양이 훗날 두 나라 사이에서 분쟁의 씨앗이 될지는 흐루쇼프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미국과 극한 대결을 해오던 소비에트 연방은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면서 일대 전환을 맞

-
- 8) 이 사건은 보이세치 스마르조프스키(Wojciech Smarzowski) 감독의 2016년작 폴란드 영화 『증오』(Wotyń, 영어 제목으로는 Hatred)에서 생생하게 재현된다.
 - 9) 우크라이나의 자생적 파시즘 운동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치 독일에 협력하고 부역해서 인종청소를 자행한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에 관한 상세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뛰어난 논문 두 편이 있다. 구자정(2015), 구자정(2020).
 - 10) 스테판 반데라의 사상과 구체적인 활동, 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가장 풍부하고도 정확한 지식이 담긴 연구로는 Marples(2006), Rossoliński-Liebe(2014)가 있다.

이했다. 1990년에 고르바초프는 자본주의 진영에 속하는 서독이 공산주의 진영에 속하는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북대서양조약 기구, 즉 나토가 독일 동쪽으로 더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에 소비에트 연방이 갑자기 허물어진 뒤 연방에 묶여 있던 15개 공화국이 뿔뿔이 흩어져 홀로 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였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처음으로 주권 독립 국가가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우크라이나 역사상 실질적인 첫 독립국인 이 나라의 앞에는 꽃길도 아니라 가시밭길도 펼쳐져 있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바꾸는 과정은 힘들기만 했고 경제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 독립국 우크라이나의 국민 통합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드니프로 강의 동쪽에서는 러시아로, 서쪽에서는 서방으로 이끌리는 힘이 강했다. 두 힘이 세차게 맞부딪친 사건이 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린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시민들로 하여금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킨 2004년의 이른바 ‘오렌지 혁명’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서부가 대립하는 모습으로 진행되던 내부 갈등은 10년 뒤에 시민 봉기의 형태로 다시 한 번 더 불거졌다. 2013년 11월에 러시아로 쏠리는 정부에 맞서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고, ‘유로마이단(Eurodaidal) 봉기’라고 불리는 이 시위 사태는 이듬해에 내전에 가까운 분규로 치달았다.

압제에 맞서 일어났다는 소위 “자유의 전사들” 가운데에는 ‘전우크라이나 연합 <자유>’도 있었다. 이 정당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인종학살을 저질렀던 “파시스트”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고 영웅시하는 세력이며, 처음에는 평화적이었던 시위를 폭력 사태로 바꾸는 데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세력을 들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유로마이단”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갈라놓으려는 우크라이나 “파시스트”의 획책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반데라 추종 세력은 “유로마이단 봉기”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미미한 힘이라는 반박도 있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 특히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스테판 반데라가 “건국의 아버지”, “국가 영웅”으로 추앙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세력이 바라 마지않는 나토 가입 문제는 우크라이나 서부와 동부의 내분에 그치지 않았다. 이 문제에 우크라이나와 맞붙어 있는

러시아가 지극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영토가 넓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더라도 한다면 나토 군대는 러시아에 더 바짝 다가서게 되며, 가장 동쪽에 있는 나토 군대와 모스크바의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19세기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게, 20세기에는 나치 독일의 군대에게 침략당한 뼈저린 역사를 기억하는 러시아인은 서쪽에서 야금야금 동쪽으로 다가오는 나토의 막강한 군사력에 극심한 공포감을 품고 있다.

나토가 더 동쪽으로 진출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999년에는 체코와 폴란드와 헝가리가, 2004년에는 발트해 연안 3국과 루마니아가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 계속 다가오는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에까지 들어오는 사태는 러시아로서는 몸서리쳐지는 최악의 악몽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나토에 가입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러시아의 목에 들이대는 단검인 셈이다. 이 단검을 치우려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나섰다.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제물이 되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V. 맺음말: 몇몇 단상

복잡다단한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연원은 가깝게는 십 년, 멀리는 몇 백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엄연히 하나였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결코 하나가 아니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은 역사 해석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충돌 노선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민족주의라는 관념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민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쟁점의 진폭과 강도가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는 역사 논쟁은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현재가 과거를 규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의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국제 관계에서 독립 국가의 주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이상론과 강대국의 세력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파열음을 일으키며 맞부딪치는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1922년에 등장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한데 묶어 두다가 1991년에 느닷없이 해체된 소비에트 연방은 참으로 흥미로운 체제이자 제국이었다. 어떤 체제나 제국이 그토록 쉽사리 평화롭게 스스로 사라진 경우가 인류의 역사에서 소비에트 연방 말고 또 있을까 궁금하다. 체제나 제국의 해체에 으레 뒤따르기 마련인 혁명, 내전, 전쟁 같은 격통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던 1991년에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격통이 잠복해 있다가 30년이 지난 오늘날에야 불거져 나와서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소비에트 연방의 핵심이자 중추였던 러시아가 연방 체제의 해체에서 비롯되는 불이익과 위험성을 뒤늦게야 깨닫고 1991년의 실수를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이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드는 역사적 위인이 파시즘 성향이 짙은 인종주의자이자 인종 학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스테판 반데라 같은 인물 밖에 없다는 서글픈 사실은 독립 국가를 이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역사적 기반이 그리 두텁고 단단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그렇다고 해도 21세기 초엽 우크라이나에서 활개를 치며 반(反)러시아 감정을 부추겨 상황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반데라의 후예 네오나치 세력을 몰아내겠다는 러시아의 전쟁 명분에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 세력이 있고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치가 네오나치에 휘둘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로마이단” 사태에서 크게 도드라져 보인 우크라이나의 극우 파시스트 정치 세력이 그 뒤에 여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 아주 미미했다는 사실이 그 근거일 수 있다.

러시아 제국 및 소비에트 연방의 민족 문제, 특히 우크라이나의 민족 문제를 파고들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구자정 교수는 올해 4월 중순에 열린 한 학술 토론회에서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했다. 해안이 변덕이는 분석이므로 조금 길더라도 인용할 값어치가 있다.

구자정: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서부 우크라이나에 잔존해 있던 폴란드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였

다. 다만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폴란드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소러시아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점차 반(反)러시아 정체성을 구축하게 된다. 의도치 않은 다른 결과를 낳은 셈이다.

구자정: 우크라이나는 각 지역마다 역사적 경험이 달랐다.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도 하나된 우크라이나 민족을 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단결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를 ‘루스’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 자체로 만들어버렸다. 푸틴이 전쟁을 통해 막고자 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권 이탈이 전쟁 때문에 가속되었다.¹¹⁾

19세기 중후엽에 우크라이나 지식인 일부가 갈망했던, 20세기 초중엽에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꿈꾸었지만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즉 러시아와 별개인 우크라이나의 독자적 민족의식의 확립과 공고화가 21세기 초엽에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손길로 말이다. 역사의 전개는 때로는 그 행위자의 의도와 어긋나게, 때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곤 하는데, 어쩌면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그 같은 사례일지도 모른다.

류한수는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다. 러시아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을 주로 연구한다. 상명대 박물관장을 지냈다. 대표 저서: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역사학』 (동북아역사재단, 2008: 공저), 대표 역서: 『유럽 1914-1949: 죽다 겨우 살아나다』 (이데아, 2020)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 (산처럼, 2020).

11) https://snu.ac.kr/?u_event=2022-%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ec%a0%84%ec%9f%81%ec%9d%98-%ec%9d%b4%ed%95%b4-%ec%97%ad%ec%82%ac%ec%a0%81-%ec%a0%95%ec%b9%98%ec%a0%81-%ea%b2%bd%ec%a0%9c%ec%a0%81-%eb%b6%84

참고문헌

- 강원식. 2016. “17~18세기 우니아트 교회를 둘러싼 루시 지역의 정체성 갈등.”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40호, 55-87.
- 김선명 역음. 2022. 『세계의 석학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하다: 촘스키 편』. 서울: 뿌쉬킨하우스.
- 구자정. 2015. “악마와의 계약?: 우크라이나의 파시즘 운동, 1929~1945.” 『슬라브연구』 31권 4호, 1-59.
- 구자정. 2020. “악마와의 계약?: 독일 무장친위대 제14척탄병사단 ‘할리치나’, 1943~1945.” 『역사학보』 제245집, 319-371.
- 구자정. 2022.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해: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분석과 함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4월 14일). 서울.
https://snu.ac.kr/?u_event=2022-%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ec%a0%84%ec%9f%81%ec%9d%98-%ec%9d%b4%ed%95%b4-%ec%97%ad%ec%82%ac%ec%a0%81-%ec%a0%95%ec%b9%98%ec%a0%81-%ea%b2%bd%ec%a0%9c%ec%a0%81-%eb%b6%84 (최종검색일: 2022/10/30).
- 미하일로 흐루세브스키. 2016. 한정숙·허승철 역. 『우크라이나의 역사』 1, 2. 서울: 아카넷.
- 슬라보이 지체크. 2022. “‘뜨거운 평화’의 시기, 무엇을 할 것인가.” 『한겨레』 (4월 4일). 25.
- 이대회. 2022. “한일 지식인들 우크라이나 전쟁 즉시 정전 요구 성명.” 『프레시안』 (5월 9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916471289576> (최종검색일: 2022/10/30).
- 정의길. 2022. “한·일 등 세계 지식인들 ‘우크라이나 전쟁 즉각 중단’ 한목소리.” 『한겨레신문』 (5월 10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42210.html (최종검색일: 2022/10/30).
- 타라스 셰브첸코. 2005. 한정숙 역. 『유랑시인』. 파주: 한길사.
- 한정숙. 2014. “역사서술로 우크라이나 민족을 만들어내다: 흐루세브스키의

-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우크라이나 정체성.” 『러시아연구』 24권 2호, 365-406.
- 황영삼. 2005. “우니아트 교회 성립의 역사적 의의.” 『슬라브학보』 제20권 1호, 419-449.
- Marples, David R. 2006. “Stepan Bandera: The Resurrection of a Ukrainian National Hero.” *Europe-Asia Studies* 58(1): 555-566.
- Rossoliński-Liebe, Grzegorz. 2014. *Stepan Bandera: The Life and Afterlife of a Ukrainian Nationalist - Fascism, Genocide, and Cult*. Stuttgart:..... ibidem-Verlag.

Abstrac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War in the Ukraine in 2022 and Some Reflections

Lyu, Hansu^{*}

This article aims to illuminat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war in the Ukraine in 2022. 1991 saw that the Soviet Union broke up and the Ukraine became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On the ques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Western World it suffered from the serious internal disruptions. In the meantime the Russian Federation would not allow it to be closer to the European Union and NATO. Such a situation led to the sharp conflicts between both nations. In the end Russia invaded the Ukraine, and the Western World denounced th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supported the Ukraine's desperate war effort. To be sure, the outbreak of the war in the Ukraine in 1922 is a result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past thirty years. For the wid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its causes, however, the war should be put into the even longer historical contex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eat Russians and the Ukrainian people. The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the *Rus* as well as the Russian Empire and the Soviet Union is of the great help to those who are eager to find the origins of the military conflict in 1922 between Russia and the Ukraine.

Key Words: Russia, Ukraine, war, East Slavs, nationalism

논문투고일: 2022. 10. 30.

논문심사일: 2022. 11. 09.

게재확정일: 2022. 11. 16.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ical Content, Sangmyung University,
petrograd@smu.ac.kr